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것

요한복음 1:9-13

2주 전, 오스틴 하이츠 교회 가족이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빵과 잔을 받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우리 캠퍼스 목사인 브렛 랜드리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참석자들에게 기독교인이 아니고 복음 메시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부부가 그에게 다가와서 "우리는 개종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요? 누가 앞으로 나서서 "우리는 가족에 합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에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브렛 랜드리 목사 앞에 서서 개종하고 싶다고 요청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의 증거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노스 밴쿠버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들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2주 전, 그 부부는 "우리는 그들이 가진 것을 원합니다. 무엇이든요!"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빈 목사님께서서는 세례 요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성경, 제자들이 어둠 속에서 비치는 빛의 증인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오늘의 구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9.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 요한의 1세기 세상은 참되고 진정한 빛을 갈구했습니다. 우리 세상도 같은 것을 갈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메시지와 미덕 신호에 지쳤습니다. 우리는 권력자들의 놀이에 지켰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진짜이며, 정통한 것을 갈구합니다. 예수 시대의 그리스인들에게 "깨달음"은 참 지식의 계시였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깨달음"은 토라(율법)를 통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완벽한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합니다. 그는 성취된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진리가 아니며, 누군가의 진리에 대한 생각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계시합니다. 요한은 참 빛이 "모든 사람을 비추는" 또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준다"라고 썼습니다.

1. 참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춥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빛을 준다"는 것은 "눈에 보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빛 그 자체는 따뜻하고 위안이 될 수 있지만, 모호하고 비인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는 EMMANUEL -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도 이보다 더 하나님을 더 눈에 보이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8:12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직 그분만이 생명과 빛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빛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요한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 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0절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1-2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LIDE 1 Verse 1-2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은 예수님이시며, 그분은 항상 계셨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창조된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참조, 3절).

10절을 보겠습니다. (SLIDE 3):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 이제 “세상 안에” 계십니다. 10절에서 “세상”이 처음 두 번 나오는 것은 모든 창조물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창조주, 참 빛,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 창조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의 확인 후, 요한은 장대한 아이러니를 소개합니다: vs. 10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 창조된 세상이 창조자를 알아보지 못하였다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알다"는 것은 지적인 인식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관계를 맺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분 덕분에 존재했지만 세상은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내쫓았습니다.

2. 우리는 참빛을 무시(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돌아서고 참 빛을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썄요, 요한이 10절의 세 번째 구절에서 "세상"이라는 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조직된 인간, 인간 행위, 인간 체계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반항적인 인간이 스스로의 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2:16, 요한이 기록하길: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것이라.

이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에 호소합니다. 그것은 권력과 영광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키웁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부, 학위, 명예)을 키웁니다. 이 뒤틀린 세상은 우리를 눈 멀게 하고 굳어지게 합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세상, 그분에게 적대적인 세상에 오십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참된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인 자 옆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다번역성경찬송]
개역개정 요한복음 9장

2.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요한복음 9:2).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대로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유대교에서 육체적 실명은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누가 저지른 일인가, 맹인인가, 아니면 그의 부모인가?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실직, 이민 절차 거부, 자녀의 어려움) 우리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가?"라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사람이 장님이 된 것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 그분의 의로운 성품을 나타내기 위하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특이한 일을 합니다. 그는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만들고 그 진흙으로 그 사람의 눈에 기름을 바릅니다.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왜 거기일까요? 실로암 못은 2004년에 재발견되었습니다(사진). 이 고대 못은 기혼 샘에서 흘러나온 물로 채워졌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샘물은 초막절이 끝날 때 물을 붓는 의식을 위한 못으로 적합했습니다. "살아있는 물"을 붓는 것은 메시아 시대에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과의 만남은 초막절이 끝날 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축제가 끝날 때의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목격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눈먼 사람이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눈먼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늘 구걸하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예요? 어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소경이었던 그는 간단히 "저예요. 저예요. 예수님이 저를 고쳐 주셨어요."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당황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들은 죄로 얼룩진 이 사람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려가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

언하고 공동체에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그날은 축하가 터져 나왔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 메시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눈먼 사람을 고쳐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천적 실명을 고친 사람이 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도요! 하지만 그날은 아무도 눈먼 태생의 남자에게 하이파이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처음 보는 게 어때요?"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논란과 토론, 두려움의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부모에게 고침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자기 아들인지 확인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기 아들임을 확인하지만, 예수께서 그를 고쳤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복음 9:21 "그에게 물어보라. 그는 나이가 들었으니 스스로 말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 남자를 두 번째로 다시 부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께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명령합니다(24절). 본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진실을 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요한복음 9:25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요한복음 9:34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 드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는 파문당했습니다. 완전히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그저 나쁜 사람이라고 결정합니다. 그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법을 어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그들이 예수님과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어둠, 영적 무력함, 진정한 지식의 부족에 직면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 그들의 영혼에 비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목사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작음이 아니라 우리의 위대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어둠이 아니라 그의 손을 막는 우리의 가정된 빛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옳다고 결정했을 때, 우리는 참된 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돌아가서, 소경에게 말하길.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의"라는 것은 자기의 집, 고향을 의미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떤 환대를 기대하시나요?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학교에서 하루를 보낸 후? 아니면 가족과 한 학기를 보낸 후? 상상해 보세요. 집에 도착했는데 가족이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유대 민족과 문화에 오셨지만 자신의 백성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진술 중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됩니다(이사야 65:2-3 참조).

인간 역사의 이 큰 아이러니는 요한복음의 주요 요점 중 하나입니다. 그의 메시아적 정체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증인에도 불구하고(지난주 Vinh 목사가 지적했듯이), 예수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고의로 그를 거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보는 그들만의 방식, 즉 믿음,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들로부터 그들을 구해 줄 정치적 구세주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를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범주에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5:39-40, 44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은 마음의 강인함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빛나고 싶어 합니다(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이제, 만약 모든 인류가 교만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수님의 백성이 그를 거부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만약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의 길을 가고, 우리 자신의 신이 되고, 영광을 받고, 우리 자신의 해결책을 찾는 데 너무 열중한다면,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이 공허한 심연 속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신 말씀이 우리의 비극 속으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강력한 진술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서론의 중심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우리 모두에게)에게 초대를 전합니다. 초대는 두 가지입니다. 받아들이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삶에 영접하는 것 이상입니다. 요한 음에서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신이 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선한 통치 아래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습니다." 전치사 "in"과 함께 "믿는다"라는 동사는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의 이름으로"는 예수님이신 모든 것과 그에 대한 모든 진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공로와 업적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의로운 성품과 그들의 구원을 위한 그의 사역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적 경로와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불교를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몇 가지 다른 버전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지치지 않고 노력하라!" 또는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문화를 형성하고, 모든 관점을 형성합니다. 자신의 구원에 합당하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이와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거부합니다.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삶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회심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브렛

목사 앞에 서 있는 부부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의 빛에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 우리는 참빛에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었으나 이제 고침을 받은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거부당했습니다. 다행히도 그게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못된 질문을 하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동안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예수라는 사람"(11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예수님이 "선지자"(17절)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왔다고 믿기 시작합니다(33절).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서 "너는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고, 그 사람은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네가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다"(요한복음 9:37)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즉시 "주님, 저는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는 절하고 경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있는 곳을 찾으시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권하십니다. 그분은 육체적 시력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진흙을 제거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그분을 보고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특권, 권한, 합법적 주장)를 주십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백성이 됩니다. 인류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역전됩니다!! 브렛 목사 앞에 서 있는 부부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개종하고 싶다고 선언합니다. 브렛 목사는 기분 좋게 놀랐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우리는 무슬림이지만 노스 밴쿠버에 있는 부모님이 가진 것을 원합니다." 브렛 목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천천히 설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기쁨에 압도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날까요? 그 답은 전치사 "of"의 네 가지 줄로 강조되어 주어집니다.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태어난" 것은 혈통이 아닌(즉, 자연적 혈통으로) 것입니다.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제 손주들은 거의 완벽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육체의 뜻으로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자녀를 갖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도 아닙니다." 우리는 남편의 뜻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흔히 이해되었

던 것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적 거듭남은 초자연적인 일이며, 하나님의 강력하고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듭남(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고대 사포텍 문명은 멕시코 시티에서 남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멕시코 남부의 고지대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구름 사람들"로 알려졌으며, 별을 읽고 몬테 알반(사진)의 빛의 신(다른 신들 중 하나)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후손 중 한 명인 아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지금 40대입니다. 많은 사포텍족과 마찬가지로 아나의 어머니도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싸우다 죽었을 때, 그녀의 본능은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섯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싸웠지만, 산골 마을에서 옥수수를 갈아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성폭행을 당했고, 곧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는 새로 태어난 아기 아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가 난 시누이가 그녀를 불륜 혐의로 고소하고, 그녀를 땅에 밀어 쓰러뜨리고, 칼로 공격했습니다. 다행히 이웃들이 개입했습니다.

아나의 어머니는 약해진 아나를 버리기로 결심했고, 심지어 그렇게 할 비밀 계획을 세웠지만,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덟 살 때 아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녀도 옥수수를 갈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사람들로 가득 찬 픽업 트럭 뒷좌석에 탔습니다. 마을에 가까워지자 트럭이 통제력을 잃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 산비탈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놀랍게도 아나는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 아나는 "어머니는 아프시고, 아버지가 없어요. 수치심 속에서 살아가며 희망이 없어요. 제가 왜 살아 있을까요?"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한 남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즉시 하나님의 영이 아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4.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나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녀의 수치심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녀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아나와 그녀의 남편 나초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세우신 목적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살아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요한복음 20:31).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포텍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풍부하고 충만하지만 사포텍 사람들 사이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포텍 사람들의 영혼을 화나게 할까 봐 두려워 기독교 신앙에 반대합니다. 아나와 나초는 사역과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에 빠뜨리는 개인적인 공격에 자주 직면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나는 "우리는 영생을 위해 운명 지어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줍니다." 참된 빛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고(심지어 거부할 수도 있고) 참된 빛인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신 모든 것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해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모든 상황에서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데려오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분은 십자가로 가서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당신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셨으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이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어둠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에서 돌이켜, 그분께로 향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영생을 받고, 가족이 되라고 손짓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묵상 질문

1. 예수님께서 최근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빛(진실, 은총, 선함)을 비추셨습니까?
2.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또는 딸이 되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3. 예수께서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빛을 비추고 싶어 하십니까?